

민족의 영광과 행복으로 여는 10년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불세출의 위인 (2)

백두령장의 담력과 배짱으로

주제101(2012)년 3월 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판문점을 사찰하시었다. 당시 그이의 판문점시찰소식은 세상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봄이 왔건만 이 나라 인민들의 가슴속엔 12월의 차디찬 눈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가시면 안된다고 위대한 장군님의 영구차를 눈물짓어 따라서도 약속하게 내려쬐어는 흰눈우에 자기들이 입고 있던 솜옷을 주저없이 벗어 갈아드셨던 이 나라 인민들이었다. 해는 바뀌어도 민족의 어머니를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은 가시여지지 않고 있었다. 인민들의 마음이 이리할진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었으랴. 하지만 그이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 조국통일문제를 먼저 생각하시며 그처럼 위험천만한 판문점으로의 시찰길에 오르셨기이다. 원래 판문점은 바람에 가랑잎이 흩날리어도 저도 모르게 방아쇠에 손이 가는 최대의 열점지역이다. 더우기 당시는 남조선에서 대규모의 북침공격연습인 《키리콜보》,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엄청난 도발사건들이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던 준엄한 시기였다.

민족분열의 비극을 단호히 끝장낼 결심과 의지를 지니시고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거룩한 령도의 발자취는 력사의 땅 판문점에도 어려어 있었다.

역센 기상의 분출이었다. 하기에 남조선과 해외동포들은 물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판문점경적속에 자기들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었다. -정말 결심이 단호하고 신념과 배짱이 강하신 백두산혈통의 장군만이 단행할수 있는 장거리이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은 분명 환한 대낮에 판문각로데에서 생안경을 들고 바라보시는 사진을 남겼다. -백악관과 청와대가 동시에 공중분해되는것같았다. -청청하늘에서 섬팡이 일

고 천둥소리를 듣는것같이 깜짝 놀랐다. 참으로 판문점을 사찰하시고 대낮에 적의 총구가 지척에서 바라보이는 판문각로데에서 서서히 남쪽하늘을 바라 보시던 배포유한 그이의 모습에서 우리 겨레는 백두산악과 같은 역센 담력, 기상을 지니신 령장의 모습을 보았고 그이의 손길아래 무중변영할 민족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린 분열과 대결의 상정은 이제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판문점은 의제에 의해 반세기 이상이나 갈라져 사는 우리 겨레의 가슴속아픔과 불행이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도 절게 서려있는 곳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겨레의 가슴마다에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심신을 더해주시던 그날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엄하신 영상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민족분열의 비극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아버지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이 어려어는 친필비를 먼저 찾으셨었다. 그대로부터 아홉해가 흘러 갔다. 잊지 못할 3월의 그날 판문점에 새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조국통일의지는 날이 갈수록 약탈해지는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시며 힘차게 전진하는 겨레의 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해 주셨었다. 오늘 조선반도정세는 다시 첨예한 대결과 긴장국면에 처해있다. 북남합의를 어느정도까지라도 성실히 리행하지 않고 외세의 반공화국적대시업살책동에 맞장구를 쳐온 남조선당국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지난 9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북남관계악화의 원인들을 알면서 도 외면하고 방치하였으며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것은 남조선당국의 태도에 달려있다는데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밝혀주시었다. 진정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여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애국의 발자취와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력사의 땅 판문점과 더불어 후세에 길이 전해질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오늘 우리 겨레는 세기를 이어 지속되고있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벌려나가고 있다.

온 겨레가 중첩되는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조국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지니고 거족적인 통일운동을 과감히 벌려나갈수 있는것은 조국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이 있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 공화국정부가 견지하고있는 주체적조국통일로선은 우리 나라가 분열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민족공동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우리 민족자재의 힘에 의하여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여기에는 두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우선 우리 나라가 분열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과 최중목표를 밝혀준 사상이다.

조선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하나의 민족이며 하나의 강토에서 반만년의 오랜 력사적기간 하나의 피줄을 순결하게 이어온 단일민족이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지만 우리 민족처럼 대대로 한강로에서 하나의 피줄을 이어오며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해온 그런 슬기롭고 용맹한 민족은 없다. 우리 나라의 분열은 결코 우리 민족내부의 모순에 의하여 초래된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외제에 의하여 강요된것이다. 외제 강요한 민족분열로 인하여 조선민족이 겪는 불행과 고통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 오늘 조선사람치고 민족분열의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다. 지나온 력사는 통일만이 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에서 북남관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천명하시면서 북남선언들을 무조건적으로 성실히 리행하는것을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지적하시었다.

북남선언들을 부계있게 대하고 성실히 리행하여야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민족화합의 새 력사, 공동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북남선언들은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대토를 열어나가기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주는것으로 하여 우리 겨레는 물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환동을 받았다. 이러한 북남선언들이 제대로 리행되었더라면 북남관계가 오늘처럼 심각한 교착상태에 처하지는 않았을것이며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민족사적위업에서는 커다

란 진전이 이룩되었을것이다. 북과 남이 함께 채택한 공동선언이 한조항도 제대로 리행되지 못한것은 전적으로 앞에서는 《화해》와 《평화》에 대해 떠들면서 돌아앉아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의 처사에 기인되

가 하는것은 민족내부문제를 여기저기 들고다녀 사사건건 미국의 승인을 받으려 하고 내외여론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락자산을 비롯한 첨단군사장비반입에 계속 열을 올리고있는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그러면서도 파퓰리하게 우

리로 공화국의 자위적인 국방력발전권리를 걸고들고 지어 남들이 다 하는 상용무기시합까지도 《무력도발》이라느니, 《위협》이라느니, 긴장을 고조시키는 《부적절한 행위》라느니 하는 딱지들을 잔뜩 붙여놓고 미국을 위시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공세에 적극 동조하면서 《도발》과 《위협》이라는 단어를 《대북진용술어》로 쓰고 있는것이 바로 남조선당국과 반통일세력들이다. 얼마전에도 남조선에서는 동족을 노린 대규모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이 광란

해외동포들속에서 일본정부의 조선학교차별정책을 반대하는 투쟁기운이 높아지고있다. 총련의 어느 한 초중고급학교에서는 얼마전 고등학교무상화재문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였는데 일본정부의 조선학교차별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강하게 울려나왔다. 한편 미국의 뉴욕에 있는 일본총영사관앞에서는 조선학교차별을 반대하는가 시위투쟁을 벌려왔다. 미국화협 뉴욕, 우리 학교와 함께 하는 등포요인, 노동동, 평화를 위한 제향군인(뉴저지), 국제행동센터, 세계로동당 등 여러 단체들의 후인속에서 35명

조선학교차별정책을 반대하여

의 시위참가자들은 조선어, 영어, 일본어의 3가지 언어로 된 《일본은 조선학교차별을 중지하라!》, 《제일조선학교의 교육평등권을 보장하라!》, 《일본정부의 인권유린을 규탄한다!》고 써서 횡단막을 들고 조선학교에 고등학교무상화와 유보무상화 제도를 즉시 적용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시위에서는 결의문이 낭독되었다.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가 시위투쟁을 벌려왔다. 6.15뉴욕위원회 김수부대표는 민족통일의 대장정에 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의 하나가 조선학교차별문제에 해결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해결을 위하여 다음에는 더 조직적인 시위를 준비할 입장을 밝혀왔다. 본사기자



리 온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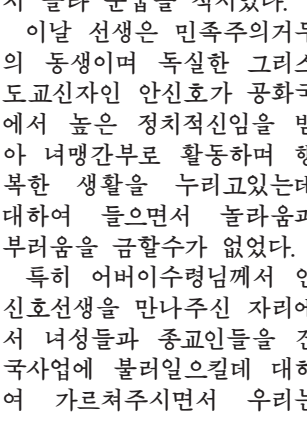
류영준선생은 날이 갈수록 민족을 위한 길에 무엇인가 바치고싶어하는 자기의 심정을 알아줄분은 오직 위대한신 김일성장군님밖에 없다는것을 확신하였었다. 하여 선생은 북반부에 있는 안창호선생의 누이동생 안신호를 통하여 항일의 여성영웅 김경숙녀사에게 자기의 고충을 적은 편지를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얼마후 북으로부터 기별을 받은 선생은 분계선을 넘어 해주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마중온 누이 안신호라 하는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안신호가 류영준선생을 마중 나오게 된 사연은 이러하였다. 안신호가 가져다드린 류영준선생의 편지를 읽어보신 김경숙녀사께서 나쁜 놈들의 배타주의적책동에 격분해 표시하시고 그에 대한 믿음과 기대는 변함없이 있다는것을 잘 알려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류영준선생에게 보내는 회답편지를 길게 쓰지 않을터이니 안신생이 체험한 사실을 이야기해주면서 자신의 의도를 알려주는것이

한 여성민주인사를 참된 애국의 길로 (2)

라고 교시하시였는데 대해서도 전해주었다. 류영준선생은 이렇듯 능력도 없고 나뉘워 해 한 일도 없는데 자기에게 이렇듯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니 진정 그 고마움과 은혜로움을 무슨 말로 표현해야 할지 불라 눈물을 적시었다. 이날 선생은 민족주의겨주의 동생이며 진실한 그리스도교신자이신 안신호가 공화국에서 높은 정치적신임을 받아 나맹간부로서 활동하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는데 대하여 들으면서 놀라움과 부러움을 금할수가 없었다. 특히 아버지수령님께서 안신호를 만나주시는 자리에서 선생들과 종교인들을 건국사업에 불리일으키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우리는

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느님》을 믿을바에야 조선의 《하느님》을 믿어야지 무엇보다도 먼저 미국의 《하느님》을 믿겠는가고 하시였다는 교시는 참으로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하느님》을 믿을바에는 조선의 《하느님》을 믿으라! 신앙생활에서 고결화되어 온 숭비사대주의와 민족해부주의를 버리고 민족의 주체성을 뚜렷하게 살려나가는 것은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이 담긴 가르침이었다. 안신호의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공산주의에 대한 이전 날의 그릇된 인식을 털어버리고 장군님의 공산주의는 온 민족을 위하는 특유한 공산주의라는데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지 않았다. 우리 녀성들이 민족의 령도자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따르는데 어찌 죄로 되느냐, 잡아가두려면 너명원장인 나민을 거둬놓고 다른 동무들은 내놓으라고, 그렇지 않다면 친필을 받들고 알리고 과감히 항거하며 애국의 지조와 절개를 굽기지 지켜 싸웠다. 그후 선생은 제주도4.3인민봉기를 진압하기 위한 《토벌대》파견이 결정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성명을 내었다. 《우리는 동족상잔의 죄악을 절대로 용인할수 없다. 우리는 전 녀성의 이름으로 이를 단연 배격하여 제주도 토벌을 즉시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 인민들은 외군을 철폐하고 하여 조국의 통일독립과 자유를 쟁취함으로써 멸족적동족상잔을 막아내야 할것이다.》 비록 길지 않은 성명이었지만 제주도의 《토벌》을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남조선녀성들의 피라는 절규를 진하게 느낄수 있었다. 본사기자



류영준선생